바다와 인접해 있어 산책하기 좋은 룸엣155펜션이에요. 테라스에서 차한잔하며 바다멍하고 밤에는 파도소리 들으며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어요. 조용히 쉬고 싶다면 방에서 보이는 바다 풍경과 함께 정원의 아름다운 야자수와 잔디밭을 즐기고 가세요.

"직장생활 은퇴하고 제주도가 좋아 제주로 와서 이곳에 자리잡고 살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이 머무는 동안 편안하게 묵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챙겨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어요."

룸엣155 펜션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55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해안로 245-8

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

• 푸르른 잔디밭에서 즐기는 공놀이, 배드민턴, 바베큐

• 가을, 겨울에 숙소앞에서 바라보는 해돋이

• 여행지에서 즐기는 낚시

• 연박 시 제공되는 와인 한 병으로 분위기 있는 여행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조용하게 온전한 휴식으로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

•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해지고 싶은 분

• 침대에서 편안히 바다를 바라보고 싶은 분

• 깨끗함과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버스정류장에서 도보 3분거리로 매우 가까워요.

• 도보거리에 편의점2개, 카페, 횟집, 흑돼지, 중국집, 딱새우집이 있어요

• 차량 8분~10분거리에 하나로 마트, 표선해수욕장, 큰엉해안경승로, 동백수목원, 허브동산이 있습니다.

• 숙소에 있는 자전거로 마을을 돌아볼 수 있어요.